

큐라클, 공모가 25,000원 확정...수요예측 경쟁률 1,219대 1

- ▶ 1,296개 기관 참여, 공모가 최상단 확정으로 수요예측 흥행 대성공
- ▶ SOLVADYS® 플랫폼 기술, 핵심 파이프라인, 비전 등 높이 평가, 22일 코스닥 입성

<2021-07-12> 혈관질환 특화 신약개발 회사 큐라클(대표이사 김명화, 박광락)이 수요예측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.

큐라클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, 총 1,296개 기관이 참여, 1,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(20,000원~25,000원)의 최상단인 25,000원에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.

특히 "1 on 1 미팅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95% 이상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큐라클의 기술력과 신약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"며 회사 관계자들은 반색하고 있다.

총 공모금액은 533억 원이며, 상장 후 시가총액은 확정 공모가 기준 3,339억 원이다.

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"실제 수요예측 참여 물량의 100%가 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미제시 하는 등 큐라클의 플랫폼 기술, 핵심 파이프라인, 비전 등이 높이 평가됐다"고 전했다.

큐라클은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 개발에 특화된 전세계에서 유일한 SOLVADYS®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CU06-RE(당뇨황반부종 치료제), CU01(당뇨병성 신증 치료제), CU03(습성 황반변성 치료제) 등 다양한 난치성 혈관 내피기능장애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.

특히,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CU06-RE(당뇨황반부종 치료제)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과 금년말로 예정된 CU01(당뇨병성 신증 치료제)의 임상 2b/3상 신청 및 CU03(습성 황반변성 치료제)의 임상 2a상 종료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

큐라클 김명화 대표는 "큐라클 기업공개(IPO)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"며 "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실현 극대화, 글로벌 R&D 인프라 구축, 후속 파이프라인 임상개발 및 제품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"이라고 밝혔다.